



4대연금 2050년 한해 적자 178兆

(국민·공무원·사학·군인)

국민연금 106조·공무원 연금 50조 적자 눈덩이 국민 세금으로 보전...근본적인 개혁 서둘러야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연금은 2050년 한해에 모두 178조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들 4대 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50년 1년 간 연금별 적자 규모는 공무원연금 49조9천47억원, 사학연금 16조7천723

억원, 국민연금 106조2천800억원, 군인연금 4조9천141억원 등 모두 177조8천711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태여서 2044년부터 연도별 적자가 불가피하다. 2050년에는 총수입이 277조5천490억원인데 비해 총지출이 383조8천290억원이어서 106조2천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2050년 수입이 19조604억원인 데 비해 지출은 3.6배인 68조9천651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정부의 적자 보전액 49조9천47억원은 올해 9천725억원의 51배가 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2001년 599억원, 2003년 548억원, 2005년 6천96억원 등이었다.

앞으로는 2010년 2조1천47억원, 2020년 10조5천656억원, 2030년 24조5천693억원, 2040년 36조3천335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사학연금도 2050년에는 총지출 31조6천241억원, 총수입 14조8천518억원으로 예상돼 적자 16조7천723억원을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학연금의 연도별 적자액은 2020년 1조165억원, 2030년 5조7천496억원, 2040년 9조9천905억원 등으로 가파르

게 늘어난다.

군인연금도 2050년에는 총지출이 12조1천331억원이지만 총수입은 7조2천189억원에 머무르기 때문에 부족액 4조9천141억원을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1963년 발족된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따른 정부보전액은 2001년 5천514억원, 2003년 6천313억원, 2005년 8천56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 앞으로 적자는 2010년 1조1천271억원, 2020년 1조3천776억원, 2030년 1조9천826억원, 2040년 3조256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대부업체 1만8,819개

공무원 1명이 119개 담당...관리·감독 허술

대부업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는 대부업체는 1만8천819개, 담당 공무원은 158명으로 집계됐다.

담당 공무원 1인당 119개의 대부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6천626개의 대부업체가 몰려있는 서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6명에 불과했고 경기도는 대부업체 3천423개에 담당 공무원이 33명, 부산은 대부업체 1천338개에 담당 공무원이 2명이었다. 대구와 인천, 광주 등 다른 지역도 대부업체가 107~924개에 이르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많은 곳은 23명, 적은 곳은 1명이었다.

특히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공무원원은 한 명도 없고 모두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병원에 기부금·골프 접대

10개 제약사 약품공급위해...과징금 제재

약품공급하는 대가로 병원에 각종 명목의 기부금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10개 제약업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제약,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울제약, 국제약품, 녹십자, 종의제약, 삼일제약 등이다.

공정위는 다만 아직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산정하지 못했으며, 추후 이들 업체의 다양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 등을 확인해 과징금 규모를 계산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제약업체가 병원이거나 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상대로 리베이트나 레딩비(약품제택료), 기부금, 회식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병·의원과 약사, 도매상 등에게 물품과 상품권을 지원하고 의사나 관계자들이 해외나 지방에서 열리는 세미나, 학회 등의 행사에 참가할 때 참가비를 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 관계자나 의사들을 상대로 골프·식사 등을 접대하고 처방 증대를 위한 기부금을 제공했다. /연합뉴스

건보 재정 줄줄 샌다

병·의원들 치료재료 싸게 납품받아 상한가 신청

조사대상 42% 실거래가 위반

수술용 실이나 타력봉대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와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실거래가 조사 결과, 요양기관 10곳 중에서 4곳 이상이 정상금액보다 싸게 납품받아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출한 '2006년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자료'와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정상금액보다 싸게 치료재료를 구입한 곳은 조사대상 기관의 42%인 85곳이었다. 또 조사대상 275개 치료재료 가운데 66%인 180개가 정상금액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실거래가를 위반한 치료재료에 대해 상한금액을 하향 조정했으며, 이 조치로 연간 40억8천700만 원(건강보험재정 28억6천600만 원,

▲실거래가 상한제 = 정부가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실거래가를 근거로 건강보험약값이나 치료재료의 가격 상한선(최고 가격)을 정해놓고 요양기관(의료기관)이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실제 계약사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환자 본인부담금 12억2천100만 원) 정도의 건보재정과 환자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경우도 적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실거래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 의원은 말했다.

심평원이 지난해 2차례, 올해 1차례 등 총 3차례에 의약품 실거래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요양기관 240곳 중에서 45%인 108곳이 실제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계약사로부터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건보료 엉터리 징수

잘못 걷은 보험료 환급액 4년간 5,825억

해마다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잘못 거두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보험료 과과납 환급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 과과납금은 2004년 1천422억 원, 2005년 1천525억 원, 2006년 1천748억 원, 2007년 7월말 현재 1천130억 원 등 3년7개월간 5천8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자료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 관리체계에서 빈번한 가입자 자격이동과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에 따른 소급 감액조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며,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잘못 거둔 보험료를 환급금으로 결정해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양 의원은 "비록 건보공단이 건보료 과과납금을 대부분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긴 했지만, 건보료 과과납금은 을 들어 기승을 부린 건강보험 환급금 사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료 정보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제성장률 2분기 연속 5%대

3분기 GDP 1.4% 성장

국내경기가 완연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5%를 웃돌면서 2개 분기 연속 5%대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로 세계경제가 둔화가 우려되는 등 대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견실한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성장내용에서 보면 설비투자가 크게 부진하면서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이 아닌 수출 위주의 '외끌이' 성장이 지속됐지만, 민간소비가 확대되는 양상에서 향후 내수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하지만 고유가를 비롯한 달러 약세, 중국경기 진척가능성,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의 경제둔화 가능성 등 대외악재가 쌓여있어 한국경제가 '외풍'에 휩쓸리지 않고 계속 순항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평가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4% 성장했다. 이같은 성장률은 2분기(1.8%)보다 둔화한 것이지만, 이는 2분기 때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성장률을 보인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성장세가 자칫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전년 동기대비로는 5.2% 성장을 기록해 2분기 5%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5% 성장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Warren Buffett)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25일 이스라엘 IMC(Israel Metalworking Companies) 그룹의 사회사인 대구텍(옛 대한중석)을 방문,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정윤철기자 woon@msnet.co.kr

“한국 증시 매력적... 우량기업 찾고 있다”

가치 투자 대가 '워런 버핏' 한국 첫 방문

POSCO의 기아차·현대제철에도 투자

25일 한국을 첫 방문한 '가치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한국 증시가 여전히 매력적이라며 투자대상 기업을 계속 찾고 있다고 밝혔다.

버핏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손자회사인 대구텍 마케팅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세계 대부분의 증시와 비교했을 때 저평가를 받고 있다"며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버크셔 해서웨이는 약 4년 전부터 한국 주식에 투자해왔다"면서 "이미 공개한 POSCO 말고도 기아차, 현대제철(옛 IN스틸), 신영증권 등에도 투자했다"고 밝혔다.

버핏은 또한 "한국 시장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지나치게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면서 "개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한국 기업이었다던 적도 있었지만 주가가 올라 지금은 한 곳을 빼고는 모두 합리적인 가격에 처분했다"고 말했다.

버핏과 그의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20여개 한국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POSCO의 경우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전체 지분의 4%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POSCO를 매입할 당시 주가는 15만 원, 원·달러 환율은 1천150원 정도였다"면서 "시세차익은 물론이고 환차익과 배당을 통해서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지금도 이 회사 주식 34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버핏은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 한국 주식을 상당부분 매각했지만 여전히 한국 시장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 매력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투자대상 기업을 찾고 있다"면서 "우리는 주로 대기업에 투자하며 이해가 능하면서 영속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합리적인 사업을 하고 기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향후 10년 동안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 이익배율(PER)과 경제성장세, 성실한 5천만명의 국민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시장은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현대상선 내부정보로 100억대 차익

금감원, 대기업 대주주 등 '주가지조작' 조사중

금융감독원이 현대상선의 주가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관계사 대주주들이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1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현대상선과 관계가 있는 모 대기업 대주주들이 현대상선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뒤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팔아 100억원의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관계사들의 오너 친인척, 모 건설사 회장, 그리고 모 대신 후보의 친인척도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은 올해 4~5월에 인수합병(M&A) 이슈 등으로 주가가 배 이상 급등하자 5월29일 금감원에 주가 이상 급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으며 금감원은 이를 6월26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넘겼다.

증권선물거래소는 9월17일 금감원

에 매매심리 결과를 제출했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은 "증권거래소로부터 매매심리 자료를 이첩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언론의 개인들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5월 말 공시를 통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일부 언론의 기업 인수·합병 가능성 기사 등으로 인해 주가가 이상급등함에 따라 소액 주주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계당국에 증거거래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경남 아너스빌' 488세대 분양

경남기업 무안군 남약신도시에

경남기업(주)은 무안군 삼합면 남약신도시에 '경남아너스빌'아파트 488가구를 분양한다.

'경남아너스빌'은 119m(326가구)를 비롯, 116m(54가구), 120m(108가구) 등의 규모로, 남약신도시의 중심상업지구와 1km 거리에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 종합의료시설과 대형 쇼핑센터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있고, 남측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선다.

남약신도시는 목포시와 무안군 일원에 14.5km 규모의 친환경·절단도시로 건설되며, 하당신도시, 대불·영암·삼호국가산업단지 등과 인접해 있다. KTX호남선,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문의 061-287-5100.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